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코스 답사해보니...

국내 최고 계측요원 유문종·이승구씨

설날 골프장 쉽니다

# “시아 확트인 강독길 매력 지루함 없는 최적의 코스”



8일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코스 공식 계측요원으로 나선 유문종(앞)씨와 이승구(뒤)씨가 광주월드컵 경기장을 출발하고 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8일 제 42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코스를 공인 계측한 유문종(50·오른쪽)씨와 이승구(49·왼쪽)씨(49·이상 B급 공인계측사)씨.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시아가 트여있어 지루함이 없고, 주변 환경도 최고입니다.”

8일 제 42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코스를 공인 계측한 유문종(50)씨와 이승구(49·이상 B급 공인계측사)씨는 “마라토너들이 흠뻑 반할 만한 최상의 코스”라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 들었다.

### 대한육상경기연맹 코스 공인

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 마라톤코스를 실측하는 공인계측사는 계측 가능한 범위(세계, 대륙, 국내)에 따라 A, B, C급으로 나뉘는데, 국내에는 B급 계측사 2명과 C급 계측사 2명이 활동중이다.

국내 유일의 B급 계측사인 유씨와 이씨는 연간 20여 회의 공인 실측을 하는 베테랑들로 국내 모든 공인

코스는 이들의 손을 거쳐갔다.

이들이 공인한 코스에서 뛰게되면 각종 국·내외 마라톤대회 참가시에도 공식기록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내에선 연간 300여개의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데 공인 코스로 인정받은 대회는 100여 대회 안팎이다.

유씨와 이씨는 ‘캘리브레이션(자전거가 굴러간 거리를 기준으로 코스를 재는 것)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한다.

남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자전거 타이어가 수축 또는 이완되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에 미세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그 오차율은 0.005% 정도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두 명이 같은 코스를 측정해 평균값으로 나누다보니 오차 범위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7년째 공인계측사로 활동중인 이들은 한 번 계측만으로도 코스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직업상 마라톤 코스를 돌아본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유씨와 이씨는 3·1절 마라톤 대회의 코스를 묻는 질

문에 주저없이 ‘최고’라고 입을 모았다.

유씨는 “광주가 대도시인데도 주변 경관과 자연 환경이 좋아 마라톤 코스로는 제격”이라면서 “특히 주변이 확 트인 극락강 특길 코스는 마라토너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구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나주 남평교 코스를 지날 땐 어릴 적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친근한 흥분새도 맡을 수 있었다”며 “도시와 시골이 적절히 어우러진 환상적인 코스”라고 극찬했다.

### “후반부 오르막이 고비”

이들은 또 코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유씨는 “전반적으로 평지로 구성된 무난한 코스다. 따라서 초반에 쉽게 보고 무리하게 질주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마지막 구간의 오르막길은 상당한 난코스다. 초반에 힘을 비축해 후반에 사용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또 도로의 포장 상태가 고르지 못한 일부 구간의 보안을 지시하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함평다이내스티 등 61곳

설날에도 전국 48개 골프장이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는다.

8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전국 회원사 골프장을 대상으로 설 연휴 동안 개장 여부를 조사한 결과 48개 골프장은 17~19일 3일 내내 영업을 한다. 또 설날인 18일 하루만 쉬고 17일과 19일에는 문을 여는 골프장이 함평다이내스티 등 61곳에 이르러 연휴 동안에도 얼마든지 골프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다음은 설 연휴기간 전국 골프장 휴, 개장 계획.

▲연휴 무휴 개장 골프장(48개)=강남300, 계동대, 골드, 골드레이크, 광릉, 광주, 금강, 리온, 라헨스, 레이크힐스제주, 로드랜드, 비발디파크, 비에이비스타, 사이프스타, 수원, 샌드파인, 서라벌, 센츨리21, 스카이힐제주, 시그너스, 쉐럴, 아크로, 양지파인, 에딘버러, 에버리스, 엘리시안, 오라, 오션뷰, 이포, 인천국제, 임페리얼레이크, 자유, 제주, 제피로스, 중문, 캐슬렉스, 캐슬렉스제주, 코리아, 크라운, 클럽900, 태안비치, 태영, 태인, 파인밸리, 파인힐스, 포천아도니스, 핀크스, 한탄강

▲18일만 휴장 골프장(61개) = 가야, 경주신라, 그랜드, 기흥, 남서울, 남성대, 남수원, 남여주, 뉴서울, 뉴스프링빌, 다이내스티, 대구, 도고, 동래베네스트, 동부산, 폐계배, 레이크힐스용인, 레이크힐스함안, 리츠칼튼, 동베르, 문경, 발안, 부곡, 상패힐, 서서울, 서원밸리(퍼블릭은 개장), 선산, 송추, 스카이밸리, 신라, 신원, 실크리버, 쉐넬, 아시아드, 안성, 안양베네스트, 양주, 여주, 오션힐스포항, 용인, 울산, 유성, 제일, 중앙, 진주, 창원, 천안상록, 클럽비전힐스, 태광, 봉도, 파미힐스, 팔공, 88, 프라자, 프리스틴밸리, 한양, 한원, 함평다이내스티, 해운대, 화산, IMG내셔널



9일(금)

▲데이비스컵 테니스(대한민국-카자흐스탄)(11:00-KBSN Sports)

▲제34회 MBC 권투 신인왕전(13:50-MBC)

▲핸드볼남자전 개막전(14:10-KBS1)

▲WBO 복싱 아시아태평양 주니어웰터급 타이틀 매치(18:50-SBS스포츠)

▲프로농구(전자랜드-동부)(18:50-Xports)

10일(토)

▲PGA투어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 2R(05:00-SBS스포츠)

## 경마장에서 이런 일이...

경마에서 마변과 착순이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8일 한국마사회(KRA)에 따르면 7두의 마필이 순번대로 결승선에 도착할 확률은 산술적으로 5천40분의 1이다.

그러한 일이 3일 서울경마공원에서 일어났다.

제6경주(1,2000m)에서 1번마 '승승무

패'부터 7번마 '희망동이'까지 7두가 마변 순서대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현상 같지만 국내 경마 역사상 이러한 일은 세번째다.

1995년 7월8일 6경주에 출주한 8두의 착순과 마변이 일치했고, 앞서 1988년 7월16일 7경주에 출주한 6두의 착순과 마

변도 모두 일치한 적 있다.

### 말 번호 순대로 결승선 통과 국내 경마 역사상 세번째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승식이 도입되지 않아 적중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었다.

일본의 한 경마장에서는 2006년 7월 1, 300m 경주에 출주한 7두의 마필 중 7번마가 1착하고 1번마가 7착을 하는 등 마변과 착순이 완전히 거꾸로 된 사례도 있었다.

## ‘장타자’ 안선주 8언더 단독 선두

### ANZ 레이디스마스터스 1R

장타자 안선주(20·하이마트)가 유럽여자프로골프(LET)투어 ANZ레이디스마스터스 첫날 단독 선두로 나섰다.

안선주는 8일 호주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의 로열파인스리조트에서 열린 대회 첫날 버디 10개와 보기 2개로 8언더파 64타의 맹타를 휘둘러 세실리아 에펠랜드(스웨덴) 등

공동 2위를 2타차로 따돌렸다.

지은희(21·LIG-김영주골프)는 함께 4언더파 68타로 공동 10위를 달렸고, MFS호주여자오픈에서 공동 5위에 올랐던 신지에(19·하이마트)는 2타밖에 줄이지 못해 2언더파 70타로 박희영(20·이수건설), 유수정(20·금강제화)과 20위권으로 처졌다.

타이를 방어에 나선 양희영은 최나연(20·SK텔레콤)과 함께 1언더파 71타를 쳐 30위권으로 밀렸다. /최재호기자 lion@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움 전국최다입회자 배움

2·1 조건도 개편

주택관리사 1명 1위

광주고시학원

문의: 227-8000 / 071-0002

누구나 합격가능

공무원 시험 대비 특강

고정된 합격률

전남고시학원

문의: 222-5105

공인중개사 특강

소수정예반

전남고시학원

문의: 222-5105

시(조) 학생회 이종!!

학업성취 우수학생 선발

광주고시학원

문의: 227-800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2월 1일

새동 행정고시학원

문의: 361-8111